

# 신라시대 승관 모두 20여종

## 정병삼교수, 금석문자로 근거 체제·역할 밝혀

금석문을 통해 신라시대의 승관제도를 체계적으로 밝혀낸 논문이 발표돼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같은 논문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한국고대 금석문연구의 재검토'란 주제로 열린 한국사 학술회에서 정병삼교수가 내놓았다.

정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통일신라 금석문을 통해 본 승관제도란 승관을 통해 기존 문헌고증을 통한 연구의 틀을 벗어나 금석문 자료를 구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금석문의 중요성은 현존사서가 수록하지 못한 자료를 새롭게 당대의 의식으로 알려준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의의는 특히 신라시대일수록 더욱 커진다"며 금석문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또 "개체 수로 볼 때 통일신라 시기의 가장 풍부한 금석문 자료는 승관제(僧官制)와 관련된 자료"라고 지적하고 금석문 자료에 보이는 신라 승관제의 제도적인 편제와 실제 운용을 분석했다.

정교수는 법흥왕대에 공인된 불교의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흥륜사 등의 사찰을 창건하고, 12년(551) 고구려에서 망명해 온 해랑(海朗)법사를 국동(國洞)에 임명함으로써 승관제 자체를 시행했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이다.

이후 교단외 중앙은 물론 지방에도 크게 확산된 신라 중대에 들어서는 사천왕사를 비롯 한 성전사(成典寺)를 중심으로 교단을 운영했으며 지방 교단은 주봉(州府)과 군부(郡府)를 중심으로 통제해 나갔다는 것이 정교수의 분석이다.

한편 금석문은 신라대에 건립된 것만 해도 20여종의 자료에 제작과 관련된 승관 명단을 볼 수 있으며, 10여종의 자료는 약 20가지의 승관제 운용상황을 정하고 있다. 정교수는 이들 금석문 자료를 정리, 크게 네 부분으로 승관제의 양상을 분류했다.

우선, 국가적 사업인 신종(神宗) 조성이나 황룡사탑의 중수에 참여한 최고위 관원이었던 승관(僧官)법사(法師)를 국동(國洞)에 임명함으로써 승관제 자체를 시행했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이다.



정병삼교수

중앙 상위 승직자와 조형물 조성에 관련된 관리 책임자 부류인 국동·대동·주동·장법화상(法和尙)의 승직들, 세번째로는 사원의 상위 관리자인 상좌(上座)와 원주(院主)·전좌(典座)·유나(維那)·직세(直歲)의 상강(三綱) 직제, 네번째, 관리 실무자인 사(史)와 조성을 담당할 박사 및 기타 부류 등이 그것이다.

<김재경 기자>

### 승관제도 연구 얼마나 됐나

#### 직·간접 관련 논문 10여편 지배층에 끼친 영향 분석 필요

승관제도와 관련한 학계의 연구는 그다지 활발한 편이 아니다. 승관제도에 관한 공인된 문헌에 부여 정치적 역할을 하게 한 제도이다.

'국사', '국통' 등의 호칭들이 이 승관의 직급인 셈이다. 이같은 승관의 전통은 고대사, 불교 전래이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승관이 지배층의 정치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승관에 대한 연구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승관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논문으로는 인환스님의 '신라 승관제의 설치 의의' (82년, 불교학보) 등 몇편이 있을 뿐이다. 이외에는 승과제

도 또는 신라·고려시대의 승려행정을 밝힌 논문이 10여편 발표된 것으로 집계된다.

승관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보이는 논문들은 아래와 같다.

▲ '신라 승관제의 설치의 의의' 재인환(82, 불교학보)

▲ '신라 국가불교의 형태와 구조' 홍윤식(92, 가산문고)

▲ '고려시대의 승과제도와 그 기능' 하홍식(76, 역사교육)

▲ '신라 공인(公認)불교의 사상과 그 정치사적 의미' 김부진(87, 지식산업사)

▲ '초기한국불교교단사의 연구' 불교학보 (86, 민족사)

▲ '구마라집과 그 시대적 배경' 구마라집의 사상, 교학 구마라집과 석굴예술 구마라집에 관계된 불교문물에 관한 논문 등 30여편이 발표됐다.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다수 참석, 논문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구마라집에 관한 학술회의는 이미 90년 일본의 중어일본어학회 주최로 교토에서 거행된 적이 있으나, 그의 출생지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측이 이 학술회의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신강성 위그루차지구 문화원과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및 아구태평양연구소, 중국 불교협회, 신강성사회과학원, 신강성불교협회, 신강성차차갈연구소 등 중앙정부의 물론 자치정부, 불교관계단체가 망라되어 공동주최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구마라집(344~413년 또는 350~409년)은 한강 이진 구역(龜淵)시대의 대표적 번역가였다. 구마라집은 서역에 있을 때 이미 여러가지 외국어에 통달했으며 오랫동안 중국어를 배워 장안에서 역경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전국불교학술발표회 자유주제 논문 총 13편 11일 동국대서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오는 11월11일(금) 오전 10시 동국대 동국관 1301에서 제22회 전국불교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자유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원광대 한중민교수의 '원효와 노자사상과의 회통' 등 모두 13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원효와 노자사상과의 회통 (한중민) △백제 의상(義相)의 유식사상(이만) △한국불교교단소멸론에 대한 연구(이경호) △고대인도 사유전통에서 본 철학과 종교의 의미(공오민) △나옹대사의 범백(이철환) △초기불교의 성립에 대한 문제(신성현) △조동(曹洞)종파의 개조 사상(박문기) △오사팔교(五部八教)와 삼종교사(三尊敎相)(지창규) △모자이론론(牟子理論論)에 나타난 유·불의 갈등(나기성) △후기승관과 파의 정의(定義)에 대하여(이대승) △한국에서 불교와 유교의 만남과 그 관계변화(윤영애) △조선불교학의 연구(김광식) △불교와 현대여성의 역할(하정희) 등. <차주삼보>

### '원효사상' 학술회의 18,19일 타워 호텔에서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기영)은 오는 18, 19일 이틀간 타워호텔에서 '원효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는다.

"우리는 오늘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란 부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국내·외 7명의 학자가 발표자로 참가한다. △비나드 파워레교수(스텐포드대) △허버트 워트슨교수(호브기린학회) △헨스 야마오리교수(일본학국재연구소) △로버트 버스웰교수(U.C.L.A.) △이부영교수(서울대) △이기영원장(한국불교연구원) 등이 발표에 나섰다."

### 회당학회 심포지움 대전 신덕심인당서

회당학회는 지난 29일 대전 신덕심인당 강당에서 제3회 회당사상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혜정스님(유가심인당 주교)이 '종교의 불타관'을 객관연구(동아대)가 '새로운 철학을 제시한 회당'을 임재한교수(육군3사관학교)가 '회당의 총요'를 조영현교수(원광대)가 '한국근대사상사의 맥락에서 본 회당'을 김효성교수(동국대)가 '천수경과 회당의 심인불교-국자지인'과 참회록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했다.

### 곡식·채소를 먹는것도 살생이 되나

문 불가에서는 살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채소를 먹는 것도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산 북구 감전동·김해덕)

답 우주 만물에 생명 없는 것은 없습니다. 물이나 공기라면 우리는 생명 없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체가 생명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쇄적으로 먹고 먹히고 고리를 이루며 살게 되어 있기에 차원이 낮은 것은 높은 쪽에 먹히게 됩니다. 진리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 자신의 생명, 나의 일부라고 여겨서 늘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살려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존재가 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지요.

먹는 입장에서 보면 한 생명체를 죽이는 일이야말로 끔찍한 일이지만 낮은 차원의 것을 높은 차원으로 빨리 진화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먹는 대상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서 감사한 마음을

문 스님께서는 '살생을 주안공 지어내고 말려라, 그리고 관하여'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강원도 원주시 학생동·김종호)

답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쌀을 깨끗하게 씻어 밥 지어놓고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밥 맛도 알고 배도 부를 겁니다. 그런데 해 놓지 않고 먹으려고 한다면 어찌 먹이지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를 있게 한 근본지리에 모든 걸 믿

### 지상상담 길은 묻는 이에게

가질 때 때리는 대상도 그것이 자기의 무명을 벗겨 진화시키려는 자비로 알아 기어 이해하고 할 수 있습니다. 불에서 보면 먹고 먹히는 이치가 그러하니 어찌 취미삼아 사냥이나 낚시를 즐길 수 없겠습니까.

### 전생에 닦은 선동은 공부 필요 없는지

문 전생의 업이 금생에도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동(神童)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전생에 닦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생에 영아관에서 살았다면 금생에 영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닐는지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최희재)

답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닦은 게 없어서 몸을 바꾸어 다시 태어났다면 했던 것일까요? 밥을 씹아 올리는데 기단을 짓고서 다 쌓았다고 할 건가요, 2,3층 쌓고 다 쌓았다고 할 건가요.

전생에 공부를 잘 했다 하더라도 금생에 다시 공부를 쌓아야 할 쌓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전생에 공부한 인연이 있어 남들보다 빨리 문리가 터져서 하나를 배우면 열가지를 알게 되는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5층 탑이 9층 되고 13층 되게 계속 쌓아 올려 진화하는 것이 전생에 닦았다고 가만히 있었다면 금생에 태어난 의미는 어디로 갑니까? 과거가 끝 오늘이니 그런 상념 버리고 부지런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 귀신이랑게 정말 있습니까

문 스님,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 강남구 도곡동·권순심)

답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아주 용하다는 사람이 올래는 물에 빠져 죽을 운이니 물이 가지 말라'고 했다면서 걱정을 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마음속으로 불귀신을 잡았다면 불귀신한테 공변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얼마 뒤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물가에 가지 말고 조심했는데, 그만 물 주린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못 쓰게되어 여러 달을 누워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 주인공 자리에 앉고 관하는 도리는

문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가을선원 대령스님께 물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52 팩스: (02)737-0598

고 말기는 작업부터 해라만이 정말 청정하고 신선한 도리를 알게 된다는 것 입니다. 주인공을 말하자면 나를 형성시킨 주제, 즉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됩니다.

부도미생전의 자리, 나의 근본이 주인공에 있어서는 선사에서 하루 종일 하찮은 일까지도 주인공에게 물고 대답하며 청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나'라고 하면 내 육신과 의식을 묶어 '나'인 줄로 알고 있지만 잘못한 그 '나'가운데 어느 때의 '나'를 진짜 '나'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데 그러하다 '나'를 인식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나'를 세우기 이전의 근본자리,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의존해 놓아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오래 떨어져 지내던 아버지와 자식이 상통하듯이 한마음을 상통해 됩니다.

### 역만장자가 끼니를 걱정한다는 뜻은

문 현대불교신문 장간호에 실린 생활속의 불교에 '역만장자가 끼니를 걱정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서울 은평구 갈매동·최세경)

답 마음 속의 보화에 관한 귀질인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까. 후 속에 진주가 들어 있으면 그렇게 누구에게나 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수심억연을 넣어 둔 것과 같은 셈이지요. 그런데도 다들 가난하다. 없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엄청난 보화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발견하려는 것이 불행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야 세상에서 가장 큰 공부입니다. 제 마음 속에 무궁한 보화가 있는 줄 모르고 전전공공 하면서 살고 있으니 역만장자가 끼니 걱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 "대승불교로 세계화운동 벌일때"

### 일·중 학술교류회의서 권기종 교수 주장



권기종교수

일중불교학술교류회의가 '동아시아 불교 교류에 관하여'란 주제로 지난 22, 23일 일본 교토시 불교대학 사조센터에서 열렸다.

이 학술회의에서 동국대 불교대학장 권기종교수는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동북아 불교의 역할'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권기종교수는 이 자리에서 세계불교에 대한 개괄적 현상을 살피고, 동북아불교의 특징과 세계 불교사상에서 담당해야 할 불교사적 역할을 제시했다.

권교수는 한·중·일 불교의 특징을 대승불교사상에 기반을

두고 한자문화권에서 한문경전을 사용하는 점으로 파악, "대승불교는 이타(利他)의 중생제도가 제일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시대 동북아 불교가 담당할 최대의 사업이 '불교의 세계화 운동'이라는 것이 권교수의 주장.

이와관련 권교수는 "어느 지역, 어느 민족에게도 통화될 수 있고, 인간의 다양한 직업과 지적 수준에도 구애받지 않는 포용성을 지닌 대승불교가 불교

의 세계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네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불교의 국제포교를 위한 범국가적 포교기구 설립 △중요 대승경전의 영문번역과 출판 △포교사 양성 △범국가적 재단 설립 등이 그것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중·일 불교가 상호 정보교환의 차이를 넘어 세계불교의 미래에 대한 조망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평이다.

구마라집 탄생기념 국제학술회의 출생지 신강서...중국정부 이례적 지원

불경의 최대번역가인 구마라집 탄생 1650주년 국제학술회의가 지난달 8일 그의 탄생지인 중국 신강성 무차(無遮)에서 개최돼 불교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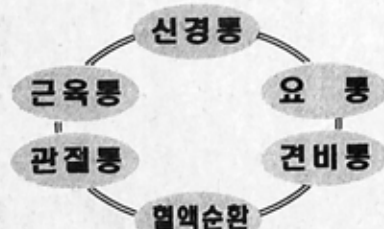
'구마라집과 중국문화'를 주제로 3일동안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중국불교와 동아시아불교에 있어서 구마라집의 위상에 관한 논문 구마라집의 문헌과 번역에 관계된 논문

구마라집(344~413년 또는 350~409년)은 한강 이진 구역(龜淵)시대의 대표적 번역가였다. 구마라집은 서역에 있을 때 이미 여러가지 외국어에 통달했으며 오랫동안 중국어를 배워 장안에서 역경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구마라집(344~413년 또는 350~409년)은 한강 이진 구역(龜淵)시대의 대표적 번역가였다. 구마라집은 서역에 있을 때 이미 여러가지 외국어에 통달했으며 오랫동안 중국어를 배워 장안에서 역경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제 3의학 시대를 여는 치료기

### 초장과 치료법으로 전지기 힘든 통증 정말 사라진다!



### 침구문화 -이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드디어 제1의학(약물요법)과 제2의학(물리요법)에 이어 초장, 온열, 전기요법의 통정으로 소망 의료용치료가 해결해드립니다!

● 몸을 많이 자극해도 과민이 계속 남는 분  
● 신경이 곤수고 잠이오지않아 깨르우실 분

### 현대명명으로부터 탈출시켜주는

### 초장파+온열+전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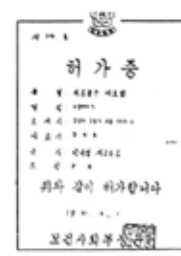
- 1. 혈액순환(중장경, 중풍, 고혈압, 저혈압, 관상맥)
- 2. 근육 이완(관, 다리, 어깨)
- 3. 통증 완화(신경통, 요통, 관절통, 전염, 근육통)
- 4. 당뇨, 신장염, 방광염



세계최초 한국초유의 특허제품

국내최초 보사부가허용

제품가격 및 규격  
1인용 : 195 x 107cm 소비자 현금 특가 685,000  
2인용 : 195 x 135cm 985,000  
허리발트 198,000



### 초장파전위 (음이온) 치료기

대학병원 임상결과 50일만에 98%, 50일째 92%라는 놀라운 치료효과를 기록  
효능·효과 : 혈액순환 촉진, 통증완화, 근육이완  
적용증 : 신경통, 근육통, 관절염, 요통, 건염  
-이심전심 보사부허용제품입니다-

제조원 : 소망의료기(주)  
주문처 : 서울 208-7974-75  
부산 412-9251

남·여 영업사원모집

100%면 겹가바  
100%면 4가바  
레이오 세리비슬  
음이온 시트판  
삼강슬 매트  
초장파 시트판  
100%면 삼강슬 매트  
100%면 4가바  
100%면 겹가바

겹가바의 색상은 계절에 따라 다소 변경할수 있습니다.